

NYPI

청소년 통계 브리프

Vol.28 2016. 07.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¹⁾

윤철경 선임연구위원 chyoon@nypi.re.kr

개요

- 조사목적** ▶ 학업중단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이후의 삶과 경험 실태 및 가치관의 변화에 대한 패널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업 중단 이후의 실태와 이행경로를 파악하고, 필요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조사대상** ▶ 2013년에 구축한 일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776명 중 2014년과 2015년 조사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 494명임.
- ▶ 494명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남학생 292명(59.1%), 여학생 202명(40.9%), 만14~15세 4명(0.8%), 16~18세 174명(35.2%), 19~20세 316명(64.0%); 중고등학교 중단상태 267명(54.0%), 중고등학교 재학 중 68명(13.8%), 중고등학교 졸업 상태 19명(3.8%), 대학진학 135명(27.3%)
- ▶ 이행경로 분석은 이 중 학업중단 시기가 2012년 6월 이후인 333명을 대상으로 하였음.
- 조사방법** ▶ 면접원 및 조사대상자의 1:1 대면면접에 의한 설문
- 조사기간** ▶ 2015년 6월 ~ 7월

1) 본 청소년 통계 브리프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도 연구과제인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Ⅲ' 보고서의 일부내용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를 참조하기 바람.

1. 주요 결과

■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경로

- 패널조사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중단 후 이행 경로를 분석한 결과, 중단 후 3년째에 학업형이 50.4%, 직업형이 32.4%, 무업형이 11.1%, 비행형이 6.0%로 추정됨.
- 이를 통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3년 후 경로를 추정해 볼 때 학업형이 169,621명, 직업형 109,042명, 무업형이 37,357명, 비행형이 20,193명이 될 것으로 예측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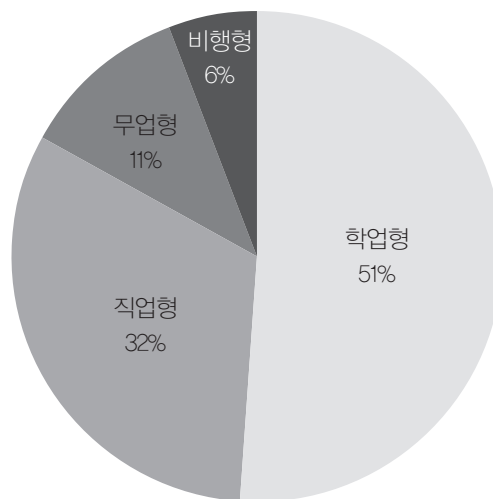


그림 1 학업중단 청소년의 유형화와 비율

■ 중단 후 이행경로 관련 변인

● 가구 경제수준

- 시간변화에 따라 동일집단 내에서 가구 경제수준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형 청소년들의 가구 경제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형과 직업형 청소년은 조사 시점에 따른 가구의 경제수준 변화가 비슷한 양상을 보임. 그러나 무업형의 경우에는 3차년도 시점에서 크게 감소하는 양상을 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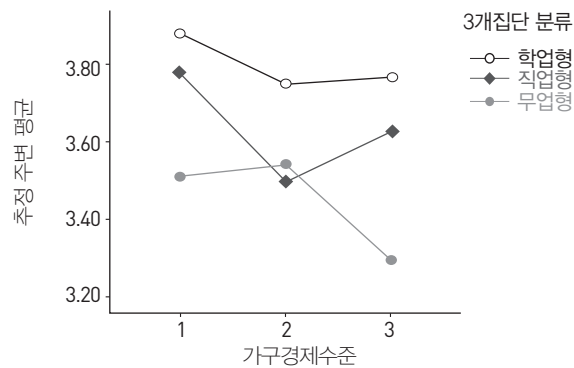


그림 2 이행경로별 가구경제수준의 변화 추이

● 자아존중감

- 세 집단 간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변화 역시 유의하지 않았음. 학업형 청소년은 자아존중감이 다소 높아지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직업형 청소년은 낮아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무업형의 경우에는 2차년도 조사에서는 1차년도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졌으나, 3차년도 조사에서 소폭 감소하는 양상을 띠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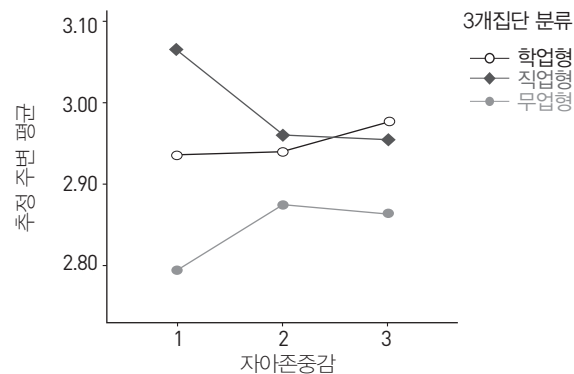


그림 3 이행경로별 자아존중감의 변화 추이

● 게임중독

- 이행경로에 따른 세 집단 차이가 유의미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일 집단 내 청소년들의 게임중독 수준도 변화함.
- 시간에 따른 게임중독 수준은 세 집단 모두 낮아지나 무업형 청소년의 경우 다른 유형의 집단에 비해 높은 게임중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감소폭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남.
- 학업형 청소년들은 가장 빨리 게임중독에서 탈출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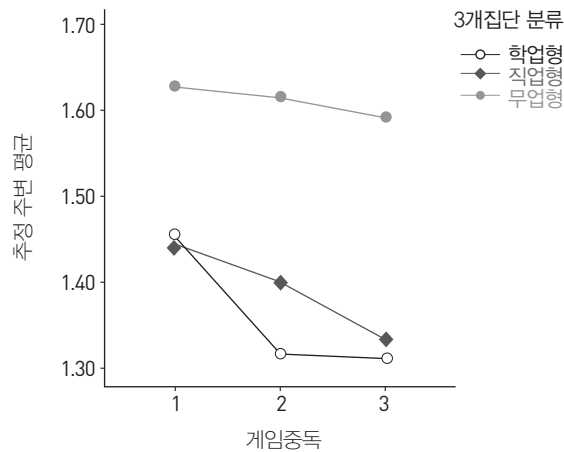


그림 4 이행경로별 게임중독의 변화추이

● 부모의 정서적 지원의 집단 내/간 차이

- 집단 간 차이는 없었으며 변화양상의 차이도 나타나지 않음.
- 학업중단 직후에는 무업형 청소년들의 부모의 정서적 지원 수준이 가장 높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반대로 가장 낮은 집단으로 변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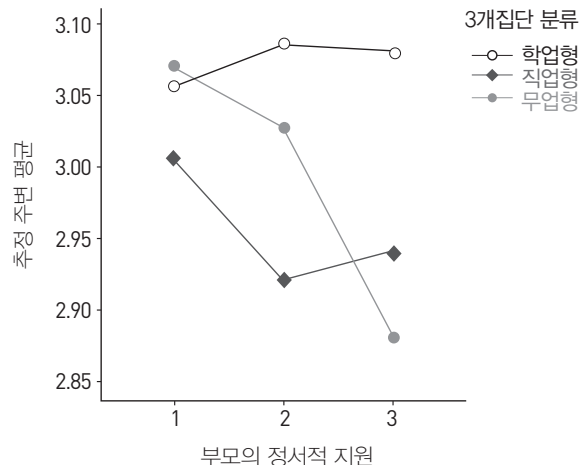


그림 5 이행경로별 부모의 정서적 지원 변화 추이

● 친한 친구 수의 집단 내/간 차이

- 동일 집단 내에서 친한 친구 수의 변화가 발견됨.
- 세 집단 모두 1차년도에 비해 2차년도에 친한 친구 수가 증가했으나 3차년도에 모두 감소함. 특히 무업형의 경우 친한 친구 수가 다른 두 유형의 청소년들에 비해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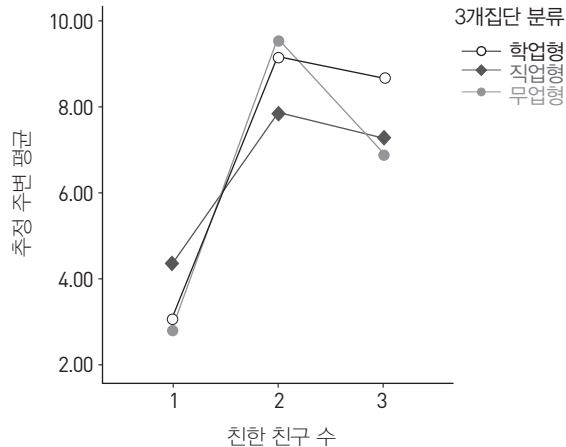


그림 6 이행경로별 친한 친구 수의 변화 추이

● 도움을 준 성인을 만난 기관의 수

- 시간 변화에 따라 성인 멘토를 만난 기관유형 수에 차이가 나타남.
- 세 집단 모두 학업중단 직후에는 성인 멘토를 만나는 경험이 많았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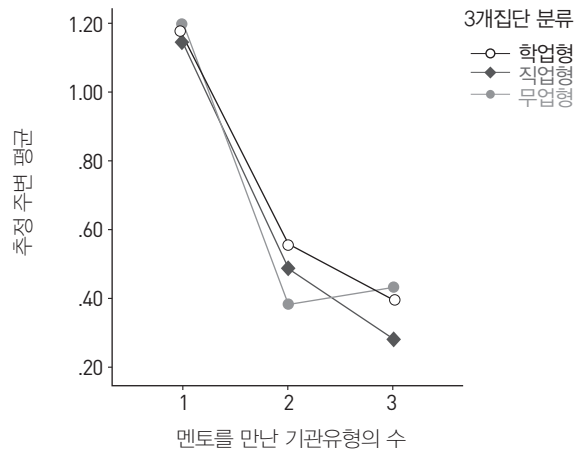


그림 7 이행경로별 멘토와의 만남 기관 수의 변화 추이

● 진로정보 탐색활동

-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진로정보 탐색활동 수준도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남.
- 무업형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활동은 시점에 상관없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시간이 지나면서 활동폭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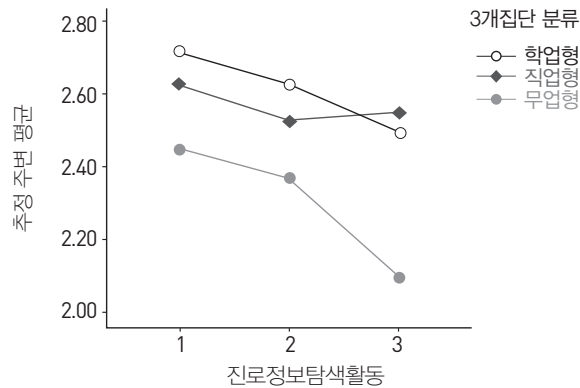


그림 8 이행경로별 진로정보탐색 활동 수준의 변화 추이

●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

- 세 집단 모두 시간 변화에 따라 불안감이 낮아졌으며,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였음.
- 무업형 청소년들은 학업중단 사실에 대해 남에게 말하기 꺼려하는 생각이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학업형과 직업형은 불안의식이 크게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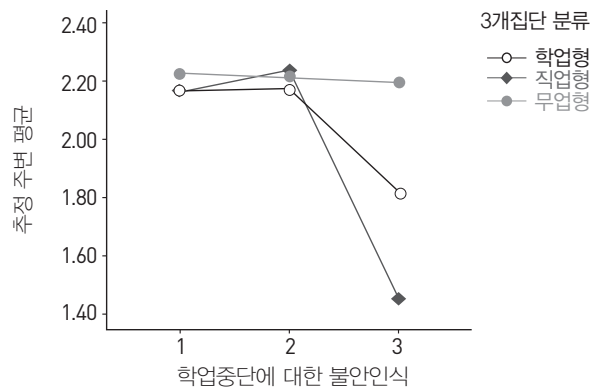


그림 9 이행경로별 학업중단에 대한 불안감의 변화 추이

■ 중단 후 이행경로 결정 요인

- 자아존중감, 학업중단사유, 학업중단 시 제공받은 정보, 중단 후 성인 멘토를 만나는 기관, 청소년의 교육기대수준 등이 중단 후 경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학업형 : 학업형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을수록 학업형 이행경로에 속할 확률이 낮아졌으며, 학업중단 시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았을수록, 교육기대 수준이 대학원 졸업 이상으로 높을수록 학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짐.
- 직업형 :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직업형에 속할 확률이 높아졌음.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자 하는 일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됨.
- 무업형 : 개인적인 이유보다 학교 사유로 학업을 중단할수록, 복지시설에서 성인멘토를 만날수록 무업형이 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업훈련기관에서 성인멘토를 만나는 경험은 무업형이 될 확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미래에 대한 목표가 뚜렷하지 않으면서 공부의 필요성이나 학교에 대한 거부감이 큰 청소년들이 무업형 경로로 소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청소년들에게 다른 대안적 진로를 안내해 줄 때 무업형에서 탈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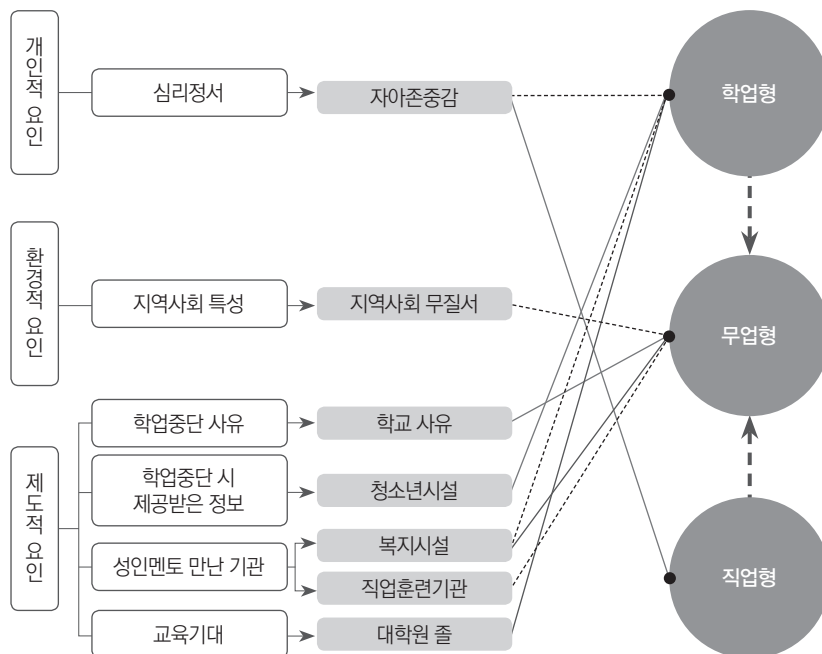


그림 10 중단 후 이행 경로에 영향을 미친 요인

2. 정책 제언

● 무업형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무업형은 중단 후 이행경로 중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중단사유 및 심리·정서상태에 맞추어 동기와 의욕을 살릴 수 있는 자기계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또한 은둔형 학업중단자를 발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가정방문 상담을 통해 외출을 이끌어내는 단계적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이들의 은둔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의무교육단계 학업중단자에 대한 공적 보호와 교육 지원

- 학업유예나 면제 시 세부사유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며, 장기결석 시 전문상담사 파견 등 적극적인 개입조치가 필요함.
- 대안학교, 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기관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이후에도 학습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교대와 사범대생의 학습지원 멘토링 강화

- 학업을 지속하는 청소년의 비율이 높으나 혼자 학습으로 학력수준을 향상시키기는 어려우며, 이들의 낮은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고 동기를 촉진하며 학습을 지원할 멘토가 필요함.
- 교대나 사범대 학생의 교육봉사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교원임용고시에 학업중단 청소년,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에 대한 일정 시간의 교육봉사활동을 가점으로 부여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음.

● 지역사회 기관의 청소년 친화적 직업훈련 프로그램 도입 지원

- 고용노동부의 내일배움카드제,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사관학교 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자부담 등의 문제, 청소년이 선호하는 훈련직종의 부족, 장기간의 훈련기간, 높은 훈련강도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들이 참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학교밖 지원센터 등 지역기관에서 청소년들이 보다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유연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